스포츠동아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sportsdonga.com 20판

박주영 등번호 91번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6면

프로야구 시범경기 결과 11일

두산	〈경기취소〉	넥센	SK 8	대전 4	한화
KIA 6	포항 3	삼성	LG 2	사직 0	롯데
kt 1	마산 0	NC			

'캡틴' 포웰, 또다시 SK 울렸다

종료 6.5초전 결승골…76-75 역전승
전자랜드 2연승…4강 PO 1승 남았다

전자랜드 리카르도 포웰(왼쪽)이 11일 SK와의 6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종료 6.5초를 남기고 역전 결승 골밑슛을 던지고 있다. 잠실 | 뉴시스

2014-2015 KBL KCC프로농구 PLAYOFFS

전자랜드 리카르도 포웰(32)이 다시 한 번 '주장의 품격'을 뽐내며 팀에 짜릿한 승리를 안겼다.

포웰은 11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4~2015 KCC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PO·5전3승제) 2차전에서 자신이 뽑은 18점 중 8점을 4쿼터 막판에 몰아넣으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활약에 힘입어 전자랜드는 76-75로 SK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원정에서 열린 1·2차전을 모두 잡았다. 프로농구 6강 PO 역사상 1·2차전을 내리 승리한 팀이 4강 PO에 진출할 확률은 100%다.

전반을 43-37로 앞선 전자랜드는 후반 들어 주희정, 김선형을 앞세운 SK의 공세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다. 양 팀이 72-72로 팽팽하게 맞선 경기 종료 40초전 김선형의 3점슛이 터질 때만해도 승리는 SK쪽으로 기우는 듯 했다. 그러나 전자랜드에는 포웰이 있었다. 경기 종료 16초를 남기고 스핀 무브에 이은 레이업으로 득점을 올린 그는 74-75로 1점 뒤진 경기 종료 6.5초전 다시 한 번 돌파에 이은 레이업을 성공시키면서 역전극을 연출했다. 4쿼터 막판 3분 11초만 뛰고도 8점을 몰아넣는 고도의 집중력을 뽐냈다. SK의 홈인 잠실학생체육관은 또 한 번 포웰의 이름을 연호하는 전자랜드 팬들의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SK는 김선형(12점·8어시스트), 주희정(12점·7리바운드), 김민수(14점) 등이 분전했지만 발목 부상으로 빠진 에이스 애런 헤인즈의 공백을 뼈저리게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전자랜드와 SK의 3차전은 13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펼쳐진다.

잠실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박정아, 2세 연하 프로골퍼 전상우와 열애

골프로 맺어진 사랑 …4~5개월째 교제

본지 단독

박정아 전상우

여성그룹 쥬얼리 출신 연기자 박정아(34)가 두 살 연하의 프로골퍼 전상우와 열애 중이다.

11일 박정아의 측근과 복수의 연예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뒤 현재 4~5개월째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두 사람이 호감을 넘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골프라는 공통분모 덕분이다. 박정아는 평소 연예인 골프 모임에서 활동할 정도로 골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 왔다. 전상우와도 골프를 매개로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특히 두 사람의 연애 기간이 아직은 짧긴 하지만, 사랑과 신뢰가 두터워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두 사람은 호기심이나 단순한 감정으로 만난 것이 아니다. 박정아가 측근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라고 귀띔했다. 이어 "연상연하커플이라고 해도 서로 배려하고 많이 의지하는 사이다. 서로 살뜰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고 말했다.

박정아는 2001년 데뷔한 4인조 여성그룹 쥬얼리의 리더와 솔로가수로 활동하다 2009년 그룹에서 나와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드라마 '검사프린세스' '웃어라 동해야' '당신뿐이야' '내딸 서영이' '귀부인', 영화 '마들렌' '박수칠 때 떠나라' '날라리 종부전' 등에 출연하며 사랑을 받아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브라운 125m 대형홈런에 선발 켈리 2이닝 퍼펙트·밴와트 3이닝 무실점 피칭까지

SK 새 외국인타자 브라운(오른쪽)이 11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시범경기에서 2회초 솔로홈런을 날린 뒤 알바레스 3루코치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SK가 올해는 외국인선수 덕을 보고 우승 고지까지 달릴 수 있을까. 대전 | 뉴시스

김성근 감독 KO 시킨 'SK 용병파워'

SK가 올 시즌 우승후보인 이유 2가지

1 1.5군으로 한화 격파한 두꺼운 선수층
2 지난해와 달리 적응 빠른 용병 3인방

SK가 김성근 감독을 이겼다. 승부의 세계에서 제자들이 스승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을 한 셈이다. SK는 11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시범경기 한화전에서 8-4 완승을 거뒀다. 결과보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SK가 언뜻 언뜻 보여준 안정된 전력이었다.

●SK 우승후보의 위용 1. 선수층

11일 한화전을 앞두고 SK 3루수 최정은 마지막 조에서 타격연습을 했다. 선발출장 제외를 의미한다. 김강민, 박정권, 박진만 등도 결장했다. SK 김용희 감독은 "날씨가 추워서 뺐다"고 말했다. 시범경기 들어 김 감독은 날씨 등 외부환경, 선수 컨디션 등 사정에 따라 예정됐던 주전 라인업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공백이 안 느껴질 정도로 선수층이 두껍다. "선수가 없다"는 감독들의 단골 푸념은 SK에서는 예외다.

1군 같은 1.5군 멤버를 가용하고도 SK는 5회까지 7-0으로 한화를 압도했다. 한화 좌완외국인투수 유먼을 3.1이닝 동안 9안타 1볼넷 7실점으로 두들겼다. SK의 새 외국인타자 앤드루 브라운은 2회 비거리 125m짜리 홈런을 터뜨렸다. 7회 이재원까지 홈런을 보태는 등 SK는 주전, 비주전 경계 없이 14안타, 2볼넷으로 8득점했다.

●SK 우승후보의 위용 2. 외국인선수

또 하나의 소득은 베일에 가려져 있던 외국인선발 메릴 켈리가 수준급 선발의 향기를 풍겼다는 점이다. SK 유니폼을 입고 첫 실전 투입된 켈리는 공 24개로 2이닝을 퍼펙트로 마쳤다. 켈리는 투심과 커터 위주의 피칭으로 땅볼유도능력이 돋보였다.

켈리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첫 피칭이었다. 눈이 오는 날 처음 던지는 경험을 해 재미있었다. 컨트롤도 괜찮았고, 커터가 오늘 잘 들어갔다"고 자평했다. 김 감독 역시 켈리의 직구구속이 쌀쌀한 날씨에서도 147km까지 나온 점을 평가했다.

이어 등판한 트래비스 밴와트도 3이닝(40구)을 1안타 2볼넷 무실점으로 막아내 건재를 보여줬다. 밴와트는 최고구속 146km 직구에 슬라이더를 곁들였다. 외국인타자 브라운도 시범경기부터 완벽에 가까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외국인선수 3명 모두가 전력으로 기능하며 SK를 둘러싼 기대치를 충족시켰다.

대전 |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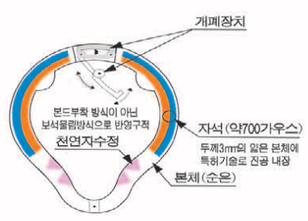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j2357

수술 없이 강한 남자!!
20대의 막강 파워! '뉴 맨'!

대표이사 서영숙

특 허 제 10-0756243 호
(PATENT NUMBER)
발명의 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성기능 강화용 링
특 허 청

* 국내 최초 유일 특허 *



중국지사 T. 0433-286-5031
지사장 권대근

일본지사 T. 03-6233-8994
지사장 호시 고우지

※ 홈페이지에서 김형일씨의 동영상을 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탤런트 김형일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어떤일에 대하여 감동이나 기적을 말하죠?
제가 만난 뉴맨 또한 감동과 기적이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삶의 질을 바꾸는 '뉴맨!!' 감동하실겁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세월의 흐름을 가장 먼저 느끼는 남성의 심벌
힘도 약하고 중간에 시들고 사이즈도 작아지고

특허청 최초 발명특허!
발명의 명칭 "남성 성 기능 강화용 링"
세계최초 유일의 3개 부문 발명특허
2.5mm마다 차별화된 38가지 사이즈 '뉴맨'

사용즉시 나타나는 막강 파워!
1.힘이 약하다 ➡ 20대의 막강 파워 !
2.잘 시든다 ➡ 끝까지 강력하게 !
3.작고 빠르다 ➡ 20~30% 더 커져서 오래도록 !
4.확대시술 후 약화된 강직도 ➡강하고 단단하게!
15일간 사용해보고 이유 없이 반품, 환불

세계인의 자존심 '뉴맨'
출시 10년만에 60만고객돌파! 일본과 중국 지사 설립
동남아 국가를 비롯하여 전 세계 20여개국 판매
핸드폰 주소창에서 뉴맨.kr 을 입력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T.1588-3346,010-8020-3346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9길 20 (우면동) (주)케이앤제이스포츠

평상시 사이즈	뉴맨 호수
6.5이하	주문제작
6.5cm	1호
6.75cm	2호
7cm	3호
7.5cm	4호
7.75cm	5호
8cm	6호
8.25cm	7호
8.5cm	8호
8.75cm	9호
9cm	10호
9.25cm	11호
9.5cm	12호
9.75cm	13호
10cm	14호
10.25cm	15호
10.5cm	16호
10.75cm	17호
11cm	18호
11.25cm	19호
11.5cm	20호
11.75cm	21호
12cm	22호
12.25cm	23호
12.5cm	24호
12.75cm	25호
13cm	26호
13.25cm	27호
13.5cm	28호
13.75cm	29호
14cm	30호
14.25cm	31호
14.5cm	32호
14.75cm	33호
15cm	34호
15.25cm	35호
15.5cm	36호
15.75cm	37호
16cm	38호
16이상	주문제작